



도심 단풍 절정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7.6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이어진 18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가로수가 붉게 물들어 가을의 정취를 더하고 있다. 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지역이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성자동차㈜
www.gi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new E300 Elegance BlueEFFICIENCY
48개월 무이자 금융프로그램 실시
062)226-0001

Mercedes-Benz

정부양곡에 고독성 농약

해충방지용 살포...잔류검사 없이 학교·군수용 납품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된 '에피홀'(상표명)이 쌀 보관 중 발생하는 해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급식·군수 납품용 나라미(옛 정부미)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저장된 쌀을 출고하면서 단 한 번도 농약잔류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국민보건에 큰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18일 광주일보가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을 통해 입수한 '농촌진흥청의 정부양곡 매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 현재 정부양곡 매출량은 45만7973t이다.

납품처별로는 가공용이 20만8812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정용 9만5942t ▲사회복지시설용 7만6176t ▲군수용 5만78t ▲학교급식용 2만502t ▲관수용 6474t 등의 순이었다.

200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나라미 총 매출량은 모두 652만9486t에 달한다. 문제는 나라미가 정부양곡

저장창고에서 보관되는 동안 '에피홀'(동물실험 결과 치사농도 m당 770mg)으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소독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된 이 농약의 주성분은 인화농약이다. 인화농은 대기중에서 수분과 결합하면 인화수소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스에 중독될 경우 피로감과 구토는 물론 심한 경우에는 호흡정지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나라미에 사용한 '에피홀'의 용량·횟수·농약 잔류 검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학교급식·군수용 등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농약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약 236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에피홀·MB·포스팜 등 12품목의 등록을 취소하려고 했으나 정부가 검역용 농약

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해 에피홀 등 3개 품목을 대상에서 뺐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 농약은 주로 수출입 농산물 검역 해충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미에도 일부 쓰고 있다"며 "농약잔류 검사는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간 이 농약에 혼증된 나라미가 학교나 군부대로 빠져나갔는데, 관계기관은 여덟 개 농약잔류 검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인체에 누적될 경우 치명적인 만큼 농약잔류 검사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에피홀' 제조업체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은 7만6304kg이다. 국내 농약 독성은 1급(맹독성)·2급(고독성)·3급(보통 독성)·4급(저독성) 등 네 가지로 구분되며, 현재 고독성 농약에 포함된 것은 에피홀 등 3종류다.

/이종행기자 gilee@kwangju.co.kr

대선 D-60...아권 단일화 실패 우려 커지는 광주·전남 민심

“만형 민주당이 통 큰 결단 내려야”

뉴스
초점

18대 대통령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정국을 바라보는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당연히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좀처럼 길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각에서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와 김영삼 후보와의 단일화 실패 사례를 거론하며 민주·진보 진영의 정권 창출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신경전이 과열되면서 지지층 결집이 반감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민심은 우려 속에서도 결국 후보 단일화는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기가 문제일 뿐, 87년 대선에서의 단일화 실패라는 우(愚)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정권 창출에 실패한다면 정치적인 미래가 없는 것은 물론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진보진영의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지엽적인 신경전에서 벗어나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가 선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민주 진영의 만형민 민주당이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정치 쉐인의 큰 틀을 제시하는 한편,

진보 핵심 인사들과 지도부의 백의종군 등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단과 회색 없는 정치공학적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 정권 창출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역 민심은 아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아직까지 유동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의 호남 배려에 대한 진정성과 안 후보의 정권 창출 및 운영에 대한 안전성에 아직까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더 현실성 있는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역의 미래발전 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지역 민심의 흐름은 대선 막판,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급격하게 한 쪽으로 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림

지역축제 길을 찾다

전문가 초청 '대안 모색' 워크숍

해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무려 25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180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축제의 형식과 내용에 특색이 없는데다 경제성 분석도 미흡해 '예산낭비'에 '단체장 생색내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축제 이대론 안된다' 시리즈 보도를 통해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광주일보는 지역축제의 실태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시대 지역축제의 창조적 미래대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성공하는 지역축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나경수 전남대교수,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 등 10여명의 전문가들이 주제강연과 토론에 나섭니다. 참가대상자는 광주·전남 시군구 문화관광·축제담당 공무원, 각종 축제기획·추진위원, 축제산업 관련업체 임직원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하셔서 지역축제의 경쟁력있는 미래모형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11월 13일(화)~14일(수)
- 장소: 광주리마디호텔
- 주최: 광주일보
- 후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참가문의: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55, 018-693-6604



나경수
전남대교수



이진철
전남발전연구원장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

폭력 저항 中어선 EEZ 조업 3년 금지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중국의 선원 사망을 불러온 불법 어업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중국의 대응 수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6면〉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두 나라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지는 불법어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협상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에 걸린 선박이 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EEZ에서 3년 동안 어업을 금지하기로 하고 해당 방안을 올해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무허가 선박이 EEZ에서 불법 어업을 하면 어업행위를 영원히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런 방안은 내년 상반기에 열리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하고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조선대학교
20만 동문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2012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취임식

- 일시: 2012. 10. 2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조선대 서석홀**
(구, 중앙도서관 옆)
- 주요인원: 임원선출 및 회장·취임식
- 문의: 사무처 228-0197~8, 225-3293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홍수

아시아 문화 체험극

연극으로 보는 아시아 문화탐험

함께하는 아시아! 같이하는 행복!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Art Bridge®

장소 아시아문화마루

인도편 2012.10.24(수) ~ 10.26(금)

몽골편 2012.10.31(수) ~ 11. 2(금)

베트남편 2012.11. 7(수) ~ 11. 9(금)

중국편 2012.11.14(수) ~ 11.16(금)

NAVER 문화마루 검색

공식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